

대행 스님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놓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세요

사계절이 있으면서 나날이 화창하게 햇볕만 나는 것도 아니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지낼 때에 우리는 모두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설법하는 것도 여러분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치 못하게, 때에 따라서는 귀중하게, 때에 따라서는 '그 별것도 아닌데….' 할 수 있으리만큼 이렇게 그대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배우려고 하고 글로 배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공한 주인공,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공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공했기 때문에 세상도 공했듯이 전체가 공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 놓으시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십시오.

그 놓는 것을 본다면, 엊그저께도 그랬고 항상 말을 하고 나가지마는, 그렇게 많은 나날을, 나날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년' 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억겁을 거쳐 온 그 자체의 습이 지금 현실의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점에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공한 데서 나오는 거 바로 공한 나 자체가 화두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는다면, 진심으로 맡겨 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일체 생동력 있는 생수 물이 자기에게 맛을 보일 수 있고 상봉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거나, 경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경을 보고 학으로다가, 말로다가, 이론으로다가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네 날이 가도 공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이 밝고 아주 화창한데 꽃이 피었다고 합시다. 봄이 돼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떨어지면 왜 여러분의 마음이 허황되고 또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겠습니까? 꽃이 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꽃이 진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체 이익이 될 수 있는, 근본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꽃이 피는 것도 아니요, 지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그 가운데 무엇이…. 나한테 일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일러 보실 수 있다면 일러 보십시오. (잠시 사이) 피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일러 보시라는데 여기에서 이 대중이….

우리가 여태 놓는다 안 놓는다는 말 없이, 여여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문구 자체를 내 스스로서 함이 없이 이르실 수 없다면 저, 아주 날은 창창하지마는 안개와 아지랑이가 끼어서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은 "이 눈을 봤느냐? 봤으면 일러라!" 하고서 주장자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참, 날은 어둡구나!" 하고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읊으시고 내려가고 이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린 근본적으로 말과 그 흉내 내는 거를 떠나서 진실한 나의 참나를 알고자 해서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뭣고' 화두나 '무(無)' 자 화두나 '시심마(是甚麼)' 화두를 쥐어서 외려 겉두더기를 붙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면 드는 대로 벌써 상대방에서 나에게 들게 해 줬으니까 의식적으로 벌써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해서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또 받아서 그것을 들고서 온종일 헤매도, 해는 점점 저물어 가는데 온종일 들고 헤매도 도대체 알 길이 없어서 그만 저녁에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이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없으면, 공한 몸이 없으면 또 무효입니다. 더하고 덜함이 없어서 무효니만큼 우리 몸이 있을 때 그 이치를, 부처님이 마음을 전달하신 것을, 그 뜻을 알면 부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부터 헤아릴 줄 알아야 부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무너지면 차원에 따라서 넝마면 넝마로 그대로 있을 거고, 무쇠면 무쇠대로 그대로 있을 거고, 금이면 금대로 그대로 있을 거다 하지마는, 금은 금대로 금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어도 그대로 여여하고, 여러분이 있는 대로 그 부처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무쇠나 넝마, 이러한 차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에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없어서 "무" 했던 게 아닙니다. 텅 비어서 빈 게 아니라 꽉 찼기 때문에 비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투면서…. 나투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즉 말하자면 몇 해 전에 조그마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잘라 버리고 접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굵은 거를 접을 붙였더니 그만 그 잔 것이 굵은 걸로 됐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발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 찰나찰나 옮겨 가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옮겨서 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화하고 다른 걸로 화하고. 만약에 고정되게 물을 한 컵을 가지고 요렇게 옮겨 놨다면 옮겨 놓은 걸로 고정되게 그냥 옮겨지기만 하겠지만, 요 물이 요리로 옮겨질 때는 바로 빈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물품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지고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바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수차적으로 이런 말을 해 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살면서도 항상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화해서 돌아간다고요. 금방 어머니 만났을 때 마음, 친구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또 동생 만났을 때 달라지고 이러듯이, 고정되게 옮겨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해서 옮겨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없다 있다 할 수도 없거니와 또는 내세울 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은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나투고 한시도, 일분일초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이지 없어서 없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참선이 어떻게 돼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참선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두를 쥐고 좌선을 할 때는 반드시 좌선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는 계율을 지키고,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상식과 더불어 계율은 스스로 지킬 거지마는, 그렇게 시간을 지켜서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면 벌써 '참선을 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런 말을 안 해도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참선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선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에 일분일초도 떼어 놓지 않는 참선이, 우리 생활 그대로 자고 깨고 똥 싸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 초도 떼 놓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선입니다. 그러니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그 도리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몽땅 바로 내가 믿고 주인공에 일임해서 놓는다면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지금 육이 나온 것은 육의 탄생이지 참나의 탄생은 아닙니다. 참나의 탄생을 하려면 그만큼 마음의 근본인 참나가 새싹이 터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씨가 여물어서 무르익어야만이 우리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내 나무에서 무르익은 실과는 온 누리의 모든 여러분이 같이 맛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먹을 수가 있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왜 죽는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생공용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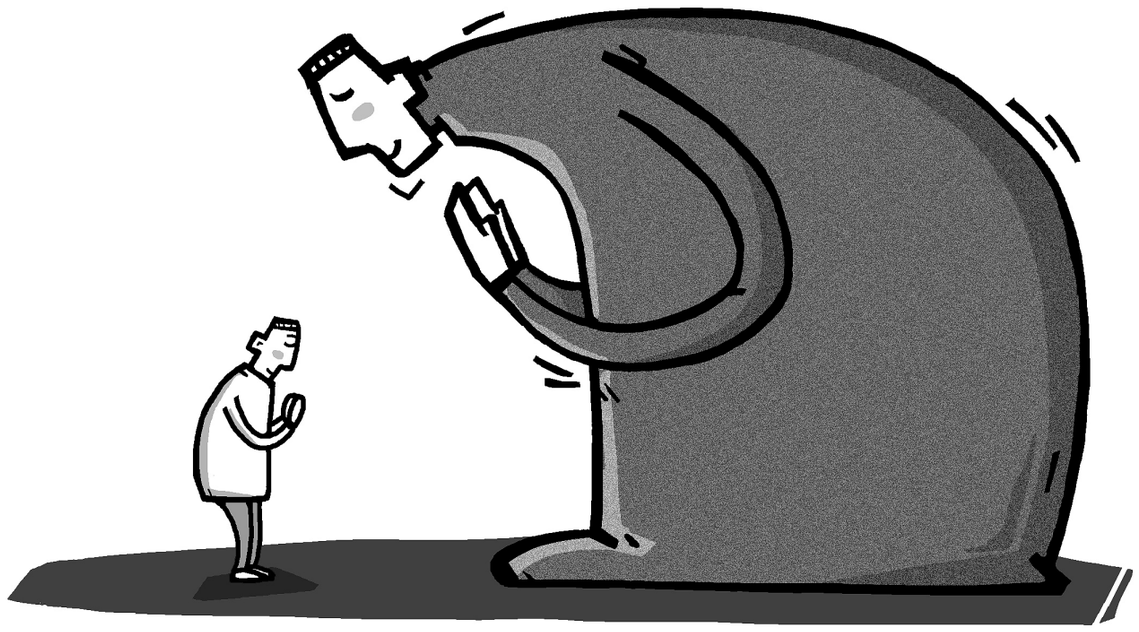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